

## 對中 수출 및 투자 환경의 재점검

林 鎮 國\*

중국은 작년 이후 한국의 수출 대상국중에서 미국, 일본 다음으로 큰 시장이다. 그런데 금년 들어 수출 증가율이 크게 둔화되면서 기존의 서방국가들에 대한 수출 신장세의 호조와 커다란 대조를 이루고 있다. 그 배경으로서 중국 정부가 실시해 온 경제긴축 정책의 일시적 영향도 크지만, 보다 근본적인 것은 일부의 품목, 특히 최종재에만 의존한 수출 확대가 한계에 부딪혔다는 데에 있다.

최근 중국내 외자계 기업의 수입이 중국 전체의 총수입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계속 증가하고 있다. 더욱이 외자계 기업의 수출 제품들이 해외 시장에서 한국 제품을 위협하고 있다. 따라서 경쟁국들의 對中 투자 동향을 분석하고, 우리 기업의 대중 수출-투자 연계의 전략을 세우는 데에 힘을 기울여야 할 것이다.

### 對中 수출의 현상

#### 중국 特需의 진정세

한중 수교를 계기로 92년 對中 수출이 전년비 164.7%의 증가율에 달하는 '중국 특수'를 시현하기 시작하여 작년에는 수출 증가율이 94.1%, 對中 무역흑자가 12.2억 달러에 달하였다. 그러나, 금년에는 수출 증가율이 더욱 낮아져 1-5월중 전년동기대비 16.0%에 그치고, 4월중에는 수출 감소도 나타났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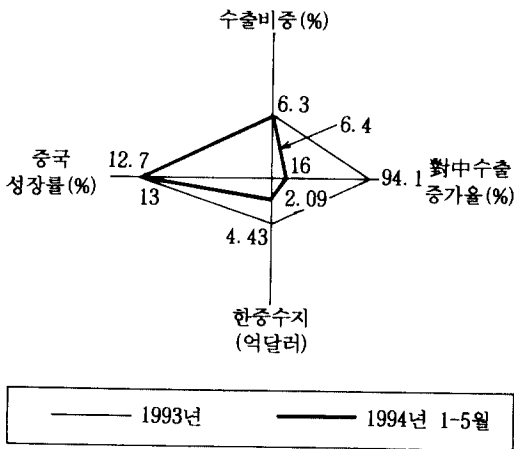
작년의 중국 특수와 금년 1-5월중 대중 수출을 비교하면 다음 그림과 같다. 중국의 경제 성장세, 對中 수출 비중(상대적 중요성)은 변함이 없는 반면, 수출 신장면이나 무역 수지(무역 실익)면에서는 나빠졌다.

중국 특수는 이제 끝나버린 것인가? 정부의 당초 예상치인 94년 對中 수출 70억 달러(年 37% 신장)는 달성 가능한 것인가? 섬유류, 가전, 전기 전자기기 및 화공품의 수출이 급증하고 있다. 이들 수출 호황 품

\* 현대경제사회연구원 책임연구원, 고려대학교 경제학 석사, 국제경제학 전공.

목들은 중국의 내수 증대와 생산 능력 부족에 힘입어 계속 호조를 보일 것으로 전망된다. 또 하반기에 자동차의 對中 수출이 되살아날 전망이다.

<그림> 1993년 중국 특수와 현재의 비교



그러나 이들 일부 품목의 對中 수출에서 경쟁국과의 경쟁도 만만치 않아 이들 신장률이 작년과 같이 가속화되는 것이 용이하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따라서, 전체 對中 수출의 증가율은 작년에 비해 상당히 둔화될 수밖에 없을 것이며, 37% 정도를 시현하는 것도 손쉬운 목표는 아닌 것으로 판단된다.

#### 단순 수출에 불리한 무역체제 개혁

중국 제8대 인민대표대회 상임위원회 제 7차 회의에서 5월 12일 「中華人民共和國 對外貿易法」이 통과되어 이번 7월 1일부터

시행된다. 이번 조치는 중국이 경제의 국제화에 대비하고 GATT 재가입을 겨냥, 가입국들의 요구에 부응하여 시장의 명료성을 보장하는 법적 제도화를 꾀하기 위한 것이다.

그러나 아직도 輸入에 대한 중국정부의 자의적인 행정 통제는 여전히 강한 것으로 알려져 있다(일본의 무역 불공정 보고서). 이 밖에 무역경영권을 보유한 각종 기업체에 차등 정책을 적용하거나, 경영권의 분권화 추진 과정에서 협조 서비스 체제가 정비되지 않음으로써 경영 질서의 혼란이 야기되고 있다. 이번 法은 대외무역을 할 수 있는 기업은 일정 조건을 갖춘 기업 중에서 중국정부로부터 허가를 받은 기업에 한하며 그 경영 활동 범위도 제한된다고 규정, 국가 관리 무역 요소가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또 아직 시행령이 발표되지 않아 정확한 내용은 파악할 수 없지만 수출입 제한 및 세이프가드 발동이 다소 자의적으로 운영될 소지를 안고 있고 수출 및 수입을 제한하는 상품에 대해 쿼터나 허가증을 통해 관리할 것으로 보인다.

한편 중국 정부는 외자 기업에 대한 수출입 관리 규정을 제정, 중국내 외자 기업들에게 자사 제품의 수출과 자체 사용을 위한 기계, 원자재, 부품, 장비 등의 수입 활동만 허용하고, 관련 정부 당국의 인가를 받지 않고서는 수출을 위한 다른 회사 제

품의 구매를 허용하지 않으며, 수출 대리인으로서의 역할도 수행할 수 없고 수입의 재판매와 수입품을 중국 내에서 다른 제품과 교환하는 것을 금지하였다.

또, 중국이 GATT와 WTO 가입을 위해 꾸준히 수입관세를 인하하고 있는데 여기서도 완성재나 자국의 산업보호 대상 품목에 대한 인하 조치는 더디게 이루어지고 있다. 중국 海關總署는 향후 중국의 수입 관세를 합리적인 저수준에 이를 때까지 매년 인하할 방침임을 발표하였다. 올들어 중국은 2,898종 상품에 대해 수입관세를 인하하였으며, 이미 작년에 3,371종의 상품 수입관세를 인하하여 중국 수입관세 세율의 총인하 폭이 15%에 달한다. 현재 중국의 관세율은 36.4%로 전년에 비해 8.6% 인하되었다. 지난 5월 15일 지난해 283 개 수입 품목 이외에 추가적으로 195 개 품목에 대한 허가 및 쿼터의 철폐를 발표한 바 있다.

#### 외자계 기업이 중국 무역을 주도

93년 외자계 기업에 의한 수입이 58.6%로 급증하고 수입 총액의 40%, 418억 달러에 달하였다. 이중 166억 달러는 투자에 필요한 설비 등의 반입으로 대금의 지불이 불필요하기 때문에 이를 제외하면 93년의 무역수지는 흑자가 된다. 또 외자계 기업에 의한 수출도 45.4%로 급증하여 수출 총액의 27.5%를 차지한 252억 달러였다. 외자

계 기업의 수출 증가액은 전년비 79억 달러로서 이는 중국 수출 총액의 증가액 68억 달러를 상회하였다. 즉 중국계 기업의 수출 총액은 감소한 것이다.

중국 정부의 예측에 의하면 금년중 외자계 기업에 의한 무역액은 전년비 35% 정도 증가한 940억 달러에 달하고, 특히 수입이 약 50% 증가할 것으로 내다보았다.

### 對中 투자 환경

#### 올들어 對中 외국인 신규 투자 감소

93년중의 급격한 투자 증대에 대한 반작용으로서 올들어 對中 외국인 투자가 감소하고 있다. 1/4분기중 설립된 외자기업의 수는 전년동기대비 43.6% 감소한 10,793개, 투자액은 50% 이상 줄어들었다.

중국 투자열의 둔화 요인은 중국의 세계 개혁과 각종 경기 과열 억제책 등이 지적되고 있다. 금년초 도입된 부동산 거래에 대한 자본이득세와 외국기업에 대한 소득세 감면 축소 등 세금 특혜 축소 등이 그것이다. 또 외화제도 개편과 최저 임금제 등도 외국투자자의 자세를 신중하게 만드는 요인이다.

이러한 현상에 대해 일부에서는 중국 경제의 정상화 차원에서 보기도 한다. 즉 그동안 비정상적으로 과열된 투자붐은 거품

의 성격을 강하게 가졌다는 것이다. 중국 정부도 투자의 안정화 현상으로 인식하고 환영한다는 입장이며, 투자의 내용도 질적 개선이 이루어진 것으로 알려졌다.

### 제도 개혁의 지향성을 파악해야

금년부터 실시된 영업세, 부가가치세 등을 비롯하여 회계제도의 체계화, 외환 관리 법령, 그리고 노무 관련 법률 등 중국내 생산 기업 관련 법률 및 제도가 차례로 제정되고 있다. 이러한 제도화 작업은 향후 5년간 계속 이루어질 예정이다(<표> 참조).

<표> 향후 5년간 주요 법규의 정비

①법인 관련 법률: 회사법(94년 7월 1일 시행), 합영기업법, 독자기업법, 주식합작기업법, 상업은행법, 파산법 등
②시장 관련 법률: 계약법, 증권법, 증빙법, 보험법, 대외무역법, 담보법, 신탁법, 중개인법, 경매법, 입찰법, 부동산법, 광고법, 선물거래법, 용자법 등
③거시통제 관련 법률: 예산법, 중앙은행법, 가격법, 국유자산법, 외화 관리법, 국채법, 세법 등
④사회보장 관련 법률: 노동법(94년 1월 승인), 사회보장법 등
⑤사회생산기반 관련 법률: 토지법, 항공법, 도로법, 항만법, 전신법, 전력법, 원자력 에너지법, 에너지 절약법 등

자료: 全國全人代立法工作會議.

주: 총 54개 법률 중에서 주요 법률만 나열한 것임.

여기서 중요한 것은, 외자 도입 정책의 방향이다. 즉, 우선 內外資에 대한 산업정책과 세수 정책의 연관성을 높이는 차원에서 내외자에 대한 평등 정책을 지향한다. 다음으로 중국내 경제 체제 개혁을 외자 도입 정책과 긴밀하게 연결시키고자 한다. 그리고, 대외 경제 제도는 국제적인 관례와 일치되는 방향에서 체계화하고자 한다.

### 중국내 외국인 투자 동향

93년도 중국에 대한 외국인 투자가 급증하여 계약액으로 전년대비 91.7% 증가한 1,100억 달러, 건수으로는 전년비 70.6% 증가한 83,000 건에 달하였다. 이 규모는 지난 79년~92년간 이루어진 투자 총액과 거의 비슷한 수준이다. 국별 투자 순위를 보면 홍콩, 대만, 미국, 일본 등의 순이며, 이들 4개국의 투자액이 나머지 국가들의 투자총액과 유사하다.

### 아세안의 對中 투자

93년 11월 홍콩에서 세계 각처의 華人 실업가들 1,000여 명이 모여 제2회 世界華商總會를 가진 바 있다. 이들은 중국이 투명한 법적 체제를 구축함으로써 자신들의 투자 자산을 안전하게 보호해 줄 것을 촉구하였다. 특히 동남아의 華人들은 92년을 기점으로 하여 華人 네트워크를 통해 對中 직접투자를 급확대시키면서 중국의 경제

개발에 지대한 공헌을 하고 있다. 그리고, 이러한 華人系를 포함한 각국의 대표적인 대기업들은 건당 투자액 규모가 적지 않은 거대 프로젝트에 대거 참여하고 있다. 또한 주목되는 것은 정부가 적극적으로 지원 활동을 벌이고 있다는 점이다.

싱가포르는 92년 이후 對中 투자가 비약적으로 급증하였는데 이는 등소평의 南巡講話를 계기로 투자 안전성을 높이 평가한 데에 기인한다. 향후 2~3 년간 해외투자의 대상국으로서 거대 시장 중국이 단연 수위인 것으로 알려졌다. 공업단지 조성, 부동산 개발 등의 사업이 중심을 이루고 있는데 투자 지역으로서 강소성, 上海, 복건성, 절강성 등이 대표적이다. 중국과 이중과세 협정이 체결된 상태이기 때문에 홍콩 등과 컨소시엄 형태로 투자하는 경우도 많다.

말레이시아는 중국 전역을 대상으로 하여 주로 호텔, 주택, 레저 시설 등의 건설업에 대해 투자하고 있다. 그리고 국내 생산비용의 상승, 노동력 부족, 그리고 주변국과의 경쟁 심화로 노동집약형 산업의 중국 진출도 증가 추세이다. 많은 경우 홍콩을 경유하여 투자가 이루어지고 있다.

### 서유럽의 對中 투자

서유럽 각국은 對中 전략을 수정하여 특히 경제면에서 협력 관계를 강화하고 있다.

독일은 1993년 후반에 「아시아 플랜」을 내놓고 아시아 각국과의 경제 관계를 확대하고 있다. 특히 중국에 대해 자국의 자금, 기술을 배경으로 시장의 획득에 총력을 기울이고 있다.

프랑스 정부도 경제계를 측면 지원하기 위해 對中 관계 개선을 꾀하고 있다. 중국의 교통, 발전, 전기 통신 분야에 대한 투자에 주력하고, 자동차, 석유 분야의 대기업도 중국과의 협력 관계를 심화시키고 있다.

스위스는 對中 수출을 年 40% 증대를 필두로 경제 협력을 강화하고, 네슬레 등의 대기업들은 공장 건설과 생산 확대를 꾀하고 있다.

서유럽 제국의 對中 투자 특징을 보면 다음과 같다.

- 대부분이 대형 프로젝트: 독일의 경우 1993년 6월 현재 계약 기준으로 건당 평균 353.6만 달러, 실행 기준으로 건당 203.7만 달러이다. 또 스위스도 1993년 6월 현재 계약 기준으로 건당 평균 236.6만 달러이다.<sup>1)</sup>
- 대기업일수록 적극적: 서유럽 제국의 對中 총투자액이 홍콩이나 일본, 미국보다

1) 1988년~91년간 중국 전체의 건당 외자도입액은 90만 달러 정도였으며, 92년, 93년은 건당 투자액이 증가하여 각각 119.2만 달러, 133.1만 달러였음.

작지만 서유럽의 대기업들은 적극적인 투자를 실행하고 있으며 내용면에서도 견실하다.<sup>2)</sup>

- 북경, 상해를 중심으로 확대: 서유럽 기업들은 우선 북경, 상해에 진출, 기반을 다진 후에 지방으로 진출 확대하고 있다. 우선 기업의 설립 전단계로서 북경, 상해 주재 사무소를 개설하고 이를 통해 정보 수집과 인맥 구축 및 강화에 주력한다. 그후 점차 북경, 상해 주변에 현지 기업을 설립하여 생산을 본격화시킨다.
- 공업 프로젝트가 다수 차지: 대부분의 진출 업종이 제조업이며, 첨단기술 사업이 많고 커다란 경제 이익을 얻고 있다. 상해 폴크스바겐의 종업원 1인당 이익은 약 18만 원을 상회하고 있다. 유럽은 중국의 자동차 산업을 이미 오래 전에 장악하여 일본 기업의 진출을 저지하고 있다.

### 미국의 對中 투자

미 기업의 대중 투자는 20여 개 성, 자치구에 분포되어 廣東省, 深圳경제특구, 上海, 北京, 天津, 江蘇省 등의 연해 성 시에 투자가 주로 이루어졌다. 석유 채굴과 개발도 연해 지역에 집중되어 있다.

2) 上海市 경우, 대규모 외자 기업에 이태리 28 개사, 독일 7 개사, 스위스 4 개사가 포함됨. 각 사당 투자액은 독일이 약 2억 달러, 이태리가 1.9억 달러, 스위스가 1.2억 달러임.

투자 분야는 기계, 전자, 통신, 석유, 야금, 에너지, 화학공업, 의약, 경공업, 방직, 식품, 여행업, 호텔, 부동산 등에 이른다. 전체적으로 미국의 대중 투자, 특히 다국적 기업의 투자 규모는 크며, 기술 수준도 높고, 경영 상황도 양호하다. 이들은 중국 산업 구조의 개선, 상품 수준의 향상, 수출 확대 등에 대해 일정 역할도 하고 있다.

1989년 천안문 사건 이후 미국은 인권 문제의 개선을 조건으로 중국에 대한 경제 제재를 개시하였다. 이에 따라 일시적으로 미 기업들의 對中 진출이 정체 국면에 빠졌다. 90년대에 들어서면서 중국의 개혁 개방과 사회주의 시장경제가 상당한 성과를 보이면서 미국 정부도 對中 정책의 수정을 하게 되었다.

거대한 잠재력을 가진 중국 시장은 미국 산업계의 對中 투자 의욕을 자극하여 미국 정부의 정책과는 별도로 움직이기 시작하였다. 최근 미국 기업의 對中 투자 급증이 보여주고 있다.

### 일본의 對中 투자

일본은 엔화의 초강세를 맞이하여 아시아 제국에 대한 현지 투자 진출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 특히 중국을 아세안에 뒤이은 현지 생산지와 엄청난 규모의 소비 시장을 겨냥, 현지 진출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

그런데 아직까지 일본의 對中 투자는 규모나 투자액 면에서 적은 편이다. 이는 중국의 특수성 이외에, 일본의 투자 방식에서 비롯된 것이라는 분석이 있다. 즉 일본 기업의 아시아 지역에서의 투자 방식은 세 가지로 분류되며,<sup>3)</sup> 對中 투자 방식의 변화가 일본 기업들의 투자 확대를 가져올 가능성이 높다.

통제력의 미비에 기인한 것이든 불안정한 경제 상태임에는 틀림없다. 따라서, 중국 정부가 추구하는 경제 정책의 기초는 안정화 방향에 두어질 것이다. 그것은 경기 안정 대책만이 아니라 경제 발전을 촉진시키는 국가적 제도의 체계화 노력을 포괄하는 것이며, 한국의 입장에서는 이들의 커다란 변화 움직임에 대해 때로 국가의 체계적(systemic) 적용 노력이 필요하다.

<표> 일본의 對아시아 투자 방식

대만형	일본측은 총경리(사장), 기술, 영업을 담당하고 대만측은 동사장(회장), 총무, 현지화 대책, 求人을 담당. 출자는 거의 50%, 임원 및 배당도 거의 50%씩임.
아세안형	일본측은 사장, 총무, 기술, 영업을 담당하고, 현지측은 현지화 대책, 求人을 담당. 출자 비율은 7대3이나 8대2로 하고 任員, 배당도 同비율로 함.
중국, 베트남형	일본측이 총경리, 총무, 기술, 영업을 담당하고 현지측은 정부관계 수속 절차, 求人을 담당. 출자, 경영 자원 등은 실질적으로 일본측이 70% 담당하지만 임원, 배당은 거의 50%씩임.

자료: JETRO. 「中國經濟」 4월.

한국의 수출 기업은 이제 장기적 플랜이 없는 무분별한 수출 증대의 행태를 자제하는 대신에 단기적으로는 최종재의 수출, 중기적으로는 산업 생산재 수출, 장기적인 생산 기지의 이전 등의 동태적인 對中 전략을 수립, 보다 일관성 있고 체계적인 접근 방식으로 균형을 잃지 말아야 할 것이다.

나아가 동남아 제국의 관민 협조에 의한 對中 공략, 구미 제국식의 주요 거점 확충에 의한 단계적 확산 전략, 일본식의 장기적인 현지인화 전략을 참고할 필요가 있다고 본다. 구체적으로 우리 정부는 중국 정부가 계획하고 지향하는 경제 개발 및 산업 정책의 미래 청사진, 우리 기업의 실정에 맞는 각종 정보를 제공함으로써 기업을 선도하는 무역 정책을 갖추어야 할 것이다. 한편, 기업들은 세계 기업화를 지향하는 차원에서 보다 장기적이고 유기적인 국제 경영 전략 체계를 구축하고, 대대적인 현지인화 프로그램을 실천할 때라 판단된다.♣

## 우리 企業에 주는 시사점

중국 경제는 현재 경제 활황세와 높은 인플레이율, 그리고 생산재 수입의 급증이 야기한 무역 적자 상태에 있다. 이것이 불가피한 경제 개발의 부산물이든, 정부의 경제

3) 増田辰弘(中國經濟, 1994.4.)